



해인사 영지는 자연물을 물 위에 비치게 하는 인경(影景)이 특징이다.

영지(影池)로 유입된 생활하수로 수질오염 심각
가야산 녹지보존은 좋은편 교란율은 국립공원 중 최악



가야산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홍류동 계곡에 자리잡은 소나무.



홍류동 계곡은 많은 원앙들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합일로 이루어진 대화엄

가야산의 진면목은 국립공원 대표소가 있는 홍류동 계곡에서부터 시작된다. '紅流洞'은 가을이면 단풍의 붉은 그림자가 물길 따라 흐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일 뿐, 동네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홍류동 계곡엔 이름과 달리 단풍 드는 활엽수보다 소나무가 더 많다.

홍류동 계곡은 원앙계곡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원앙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크고 작은 소(沼)마다 몇 쌍씩 노닐고 있다. 원앙은 오리과의 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새이다. 암컷은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보호색을 띠고 있지만, 수컷은 외모에 공을 엄청 들였다.

주차장에서 해인사 큰 절까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이 길 뿐만 아니다. 가야산의 크고 작은 절들은 한결같이 시멘트를 좋아한다. 계곡 등산로가 아니면 도무지 흙길을 밟아볼 기회가 없다.

홍류동 숲길과는 달리 일주문까지의 진입로는 운동 활엽수림이다. 특히 해인사 주변 활엽수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겨우살이 군락이다.

영지(影池)는 물의 투영성(投影性)을 이용한 '그림자 연못'이다. 외국의 영지는 가까운 주위의 건물들을 물 위에 비치게 하는 차경(借景)인데 비해 우리 사찰의 영지는 수 km나 떨어진 곳의 자연물을 물 위에 비치게 하는 인경(引景 : pulled scenery)이다. 해인사 영지가 그렇다.

영지의 인경을 방해하는 나무를 솎아내고, 물 위에 띄운 연꽃을 걷어내어 영지의 기능을 되살렸으면 한다. 그리고 묘사체에서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영지로 유입되는 바람에 녹조류 해감이 군데군데 영겨있을 정도로 수질이 떨어져 있다.

해인사의 기암배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장경각을 안치시키고, 그 아래쪽에 대적광전을 놓고, 다시 석탑과 석등을 그 아래 공간에 구공루와 함께 배치했다. 해탈문은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나게 놓고, 아래쪽 봉황문과 일주문은 다시 중심축

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배치는 자연지형과의 합일을 도모한 고도의 슬기이다. 전통건축의 기술은 얼마나 자연에 합일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일주문에서 일직선상에 사천왕문인 봉황문이 있다. 직선은 팽팽한 대립을 강조한다. 이 팽팽한 대립을 원용으로 바꿔놓는 것이 주변의 숲이다. 주로 키 큰 나무들로 조경되어 있지만, 침엽수와 활엽수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대화엄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환경 고려해 조성한 '장경각' 우수한 과학기술 자랑



장경각은 대적광전을 돌아가면 가파른 석축위에 있다.

대적광전은 가파른 석축 위에 간살이가 넓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조선 중기 문인 정시한(丁時翰)도 <산중일기>에서 '섬돌이 높고 견고한 것과 불전이 장엄하고 기교한 것과 불상이 높고 엄숙한 것이 마치 하늘의 조화인 듯하고 인력(人力)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듯했다'고 격찬 하였다.

대적광전을 돌아가면 가파른 석축 위에 장경각(藏經閣)이 안좌해 있다. 장경각의 문화재 공식 명칭은 일제가 지은 '대장경판고(經板庫)'이다. 단순히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는 뜻이

다. 이제는 대장경판전(大藏經板殿)으로 고쳐서 불러야 한다. 추사 김정희도 서울 봉은사에 있는 경판고를 일찍이 '판전(版殿)'으로 부르고 현판까지 써서 걸었다.

건축은 자연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다. 경판전이 그러한 명제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경판전 위치는 햇볕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된 서남향이다. 자외선은 이끼나 곰팡이를 막아주고, 적외선은 찬 흙바닥을 데워서 공기의 대류를 촉진시켜 온도를 균일하게 해준다. 경

판전의 흙바닥은 온도의 차이로 생기는 습기를 흡수하도록 한 배려로 보인다. 장경 당시 한 자 두께로 흙과 소금과 숯을 깔았는데, 이는 습기와 병충해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판전 뒤쪽 담장 너머에 수미정상탑이 자리하고 있다. 해인사가 앉은 형국은 피안으로 가는 한 척의 행주(行舟)이다. 배는 돛대가 있어야 한다. 높이 약 14미터의 팔각칠층석탑이 바로 해인사의 돛대다. 말하자면, 풍수비보로 세운 탑이다.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말 최치원이 짓고 다니다가 거꾸로 꽂아둔 전나무 지팡이가 자라서 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개의 전나무가 두 팔을 V자형으로 한껏 벌린 형태인 데 비해 학사대 전나무는 가지가 모두 아래로 처져 거꾸로 자라고 있는 느낌을 준다.

해인사는 또 산내암자를 16개나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 독특한 암자문화들을 갖고 있어서 암자를 순례하는 맛이 쏠쏠하다.

가야산의 녹지 자연도는 8등급이 전체의 61.7%로서 자연보존성이 양호하다. 8등급이란, 20~50년생으로 이루어진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림에 가까운 2차림을 가리킨다.

가야산 정상 주변에 이르면 신갈나무숲에 쫓겨 올라온 소나무를 비롯하여 추위에 잘 견디는 잣나무와 구상나무 등이 관찰된다. 해발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해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잣나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잣나무는 건축재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경판전인 수다라장 기둥도 바로 이 잣나무로 세운 것이다.

구상나무는 소나무, 잣나무와 함께 가야산 3대 침엽수이다. 구상나무는 해발 1,350미터에서부터 1,420미터 사이의 아고산대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가야산 구상나무는 덕유산과 더불어 분포의 북한계(北限界)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로 불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초원과 쪽빛하늘이 끝없이 이어지는 몽골!

불교방송에는 오는 **7월 14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몽골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라마교의 중심지인 강등사원에서 법회를 시작으로 몽골초원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바안고비, 몽골의 옛 수도 하르호름의 에르덴조 사원과 잔바자르 박물관을 방문하며 울란바트르의 테를지에서는 승마와 유목민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705의 5301번에서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1,200,000원 (4박 5일)
- 비자 : 반명함 사진 1장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비자비, 가이드비,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2일전까지
- 출발 : 7월 14일(목요일)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7 / 14 (목)	인천 울란바트르	OM302 전용버스	11:00 14:30	인천국제공항 출발	조
				울란바트르 도착 후 호텔체크인, 자이승 전승탑, 이태준열사 공원 견학 후 호텔휴식	중 식 중국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2인 1실)					
제02일 7 / 15 (금)	울란바트르 바안고비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강등사원 법회 및 한몽불교 교류간담회 (간등사원-몽골라마교의 총본산, 중앙아시아 최대의 금동불상) 점심공양 후 바안고비로 이동 저녁공양 후 (몽골전통요리 허르식 제공) 밤하늘의 별 감상하며 캠프파이어	조 중 식 특 식
				HOTEL 게르(4인 1실)	
제03일 7 / 16 (토)	바안고비 하르호름 만투하이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기상 후 바안고비 일출감상 및 산책 아침공양 후 하르호름으로 이동 13세기 몽골 징기스칸제국의 도읍지 에르덴조사원 (몽골 최초의 사원 108개의 탑이 있음) 방문, 점심공양 후 만투하이 여제기념비, 한민사원 방문-울란바트르 귀환	조 중 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7 / 17 (일)	울란바트르 테를지 울란바트르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후 잔바자르 박물관 관람 후 테를지로 이동 점심공양 후 거북바위등 기암괴석 감상, 아생회 군락지 관광 후 유목민과 함께하는 승마체험, 미니 나담축제, 몽골 전통공연 관람, 유목민 생활탐방(수태치 등 사시, 목가생활체험)	조 중 식 현지식
				HOTEL 파라스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5일 7 / 18 (월)	울란바트르 인천	전용버스 MU5312 MU5041	오전 14:30 17:35	아침공양 후 시내투어 및 자유쇼핑 울란바트르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성불하심시요-	조 중 식 기내식